

「흙」과 「故郷」의 源泉考察

— 1930年代 農民啓蒙小説의 比較文學의 探索 —

吳 養 鎬

I. 序

韓國 近代文學 初期의 作家들이 러시아文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보편화된 事實이다.¹⁾ 春園도 그중의 하나로 L. N. Tolstoi의 Vlastitimi(5막. 1886)을 <어둠의 힘>(1923. 9. 5. 中央書林刊)이란 제목으로 번안한 것을 위시하여, 수기체 小説「金鏡」이나, 에세이「杜翁과 나」속에 나타나는 고백, 그밖에 日記, 自叙傳 論說등 속에 톨스토이에 대한 受信者의 증거는 허다히 發見된다.

比較文學이 國際間의 文學的 關係의 역사(文學史)로²⁾ 發信者, 受信者, 送信者 가운데 二者 혹은 몇개의 文學사이의 主題, 思想, 書籍, 文學事實의 交流를 통한 研究라면, 本稿는 1920年代를 전후한 우리의 리얼리즘文學期와 이것을 잇는 프로文學期에 미친 러시아文學以後 1930年代의 農村啓蒙小説에 있어서 러시아文學과의 影響關係를 主眼點으로 다루고져 함이 그 目的이다. 특히 民族啓導의 立場에서 農村啓蒙小説을 쓴 春園과 톨스토이와의 影響과 源泉의 受信範圍, 日本의 프로文學과 우리의 프로則 農民小説까지 發信者와 受信者와의 影響의 樣式과 深度, 그 受信에 있어서 한 作家와 他作家의 그룹, 農民小説을 쓴 民族主義文學流派에 미친 影響 등이 자연문제로 등장되겠다. 그러나 이것은 比較文學의 方法論에 입각한 그 本格的인 研究가 될 수 없는 試錐作業으로서 外國文學의 思潮와 作家 및 作品의 紹介內容을 中心으로 考察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러한 立場을 전제로 本稿는 다음과 같은 點을 문제삼는다.

① 러시아에 있어서 Narodnikism 과 L. N. Tolstoi와 한국에 있어서

1) 그 예의 하나로 金億 <沙上散筆>(白熱社, 1925)에서 톨스토이를 소개 하고 있다. p. p. 29—30

2) M. F 기야르; 比較文學(全圭泰譯. 正音社 1974) p. 16

Vnarod 運動과 李光洙의 發信과 受信 및 그 受容樣相.

② 日本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農民小說과 한국 프로레타리아則의 農民小說과의 관계.

③ 民族意識을 표방하고 나타난 30년대 散文이 지니는 文學史的 位置와 意義.

(本稿는 「브·나로드運動과 農民小說」 「民族主義文學과 啓蒙小說」을 補充내지 連結하는 作業의 一團임)

Ⅰ. 本 論

Ⅱ~①

19C 러시아의 知識人들을 격동시킨 Narodnikism은 民衆 또는 農民을 意味하는 Narod와 Mir(農民自活團體)에 기초를 두고 있는 非工業的 社會主義를 지향하고 信奉하는 大衆啓蒙運動을 意味한다. 이것은 A. J. Gertsen에 의해서 先唱되고 톨스토이, 도스도옌스키, 푸르케네프등 一級 作家의 공명을 얻어 대대적인 民衆啓蒙의 文化運動으로 발전하였다. 곧 푸르케네프의 「사냥꾼의 手記」(1852)에 수록된 諸短篇은 당시 러시아의 社會問題로 크게 대두되고 있던 農奴解放(Narodnikism 運動)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고, 그의 「루우딘」(1856), 「貴族의 보금자리」(1958), 「처녀지」등도 農奴制度와 新舊思想의 갈등을 主題로 하고 있다. 換言해서 人民主義의 新봉자들이 個人을 神과 道德과 貴族制度의 종속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운동, 즉 農奴制度에 대한 反省이 바로 Narodnikism 運動이다. 이런 人權運動에 제일먼저 앞장선 계급이 작가들이었다. 도스도옌스키에 있어서는 농노제도란 부도덕과 전근대적인 것의 상징이며, 참다운 슬라브민족의 일은 러시아농민에게 있다고 믿고 農奴解放運動에 參加했다. 그리하여 이것으로 투옥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死의 家의 記錄」을 썼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Narodniki 운동을 주제로 다룬 최초의 작품으로 간주된다.

이 문호가 정치적 음모로서 서백리아까지 유형을 당하였지만 러시아의 실태에 관해서는 거의 무지하였다. 그는 귀족출신으로 인테리의 교육을 받아 민중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범죄인들 속에 들어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생활함으로써 러시아의 본질을 파악했고, 그런 독특한 작가의 체험을 예술적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 「死의 家의 記錄」이다.

톨스토이의 경우에 있어서 예술의 기능은 특수한 사회적인 이상을 인간 정신에 보급시키고 침투시킨다는 기준위에 서있는 그의 예술론의 立場에

서는 인간을 전체적 기독교 동포에의 실현이 문학의 목적이란 명제위에서 출발한다.³⁾ 그는 공연한 감상주의적 소설과 특히 불란서 상징주의시와 같은 자기중심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세련된 자기의식적인 음악과 회화가 모두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개발되었음으로 인생에게는 참으로 무의미한 세계의 욕망과 감정에 봉사해 왔다고 믿고 있다. 그가 믿기에 <예술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의적인 표식을 사용하여 자기가 겪어온 감정을 타인에게 전해주고 그 타인은 이 감정에 감염되어 그것을 경험하는 인간의 활동>⁴⁾이라고 보고 가장 위대한 예술은 언제나 가능한 가장 광범한 군중에게 호소하였으며, 가장높은 이상을 그 주제로 삼는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을 문학작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일생을 바쳤고, 또 몸소 그 이상을 실행하였다. 즉 그의 많은 농토를 농노들에게 분배하고 그들을 해방시켰다. 이것은 비단 1861년에 있는 러시아농노해방이란 외적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릴적 부터 콧소를 사숙한 위에 기독교적 인간 평등사상을 심봉한 톨스토이의 개인적 행위다. 말하자면 러시아의 Narodnikism 운동은 이런 문학자의 지지와 사상이 바탕을 이룬위에 러시아를 이끄는 한 이념으로 문학에 조응되었다. 말하자면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로 대표되는 러시아의 Narodnikism 운동은 피지배계급인 농민의 문제가 知識人이 인민에 대한 부채관념이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다뤄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듯이 <가장 학대받고 가장 비천한 사람도 역시 인간이며 형제>라는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農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러시아에 있어서의 Vnarod의 本質이었다.

그 예로 進步的인 批評의 權位였던 미하이로프스키가 1875년 그 기관지 「아테에체스트린누야·사피스키」에다가 「톨스토이伯의 右手와 左手」라는 論文을 써서 그를 Democratic Narodnik로서 觀察했다. 생활의 의문에서 自殺까지 도모하였던 톨스토이가 모스크바의 細民屈을 보고서 甚大한 충격을 받고, 또한 Narodnik의 大運動을 眼前에 두고, 점점 명확한 톨스토이主義를 形成시키기 始作하는 한편 루소의 <自然으로 돌아가라>는 思想은 이 천재에게 불란서의 土地가 아니라, 러시아의 大地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大地에서 섭취한 수확을 제시하며 農民을 닮으라고 부르짖었다. 70年代의 러시아 Narodki는 西歐思想의 영향하에 있었으나, 80年代의 톨스토이主義는 같은 Narodniki를 부르짖으면서 러시아의 大地

3) S. MAUGHAM ; 세계 10大小說과 作家(洪思重譯, 三星文庫41)10장 11장 참조
4) 톨스토이 ; 藝術論(金秉喆 譯, 乙酉文化社, 1969) p. 76.

에서 자라난 思想이 되었다. 블란서로부터 수입된 Narodniki 가 얼마후에 세력을 잃어버렸지만, 러시아에 토착화된 Narodniki 는 마침내 世界를 정복하는 톨스토이主義가 된것이다.

李光洙는 이런 톨스토이主義의 受信者의 하나다.

곧 春園의 <農村開發>과 「흙」이 그것을 증명한다. <소설채 논문> 「農村開發」은 톨스토이가 1847년 카잔대학을 중퇴하고, 야스나야폴리나영지에 돌아가 농민생활을 지도하던 시기에 쓴 自傳的 소설<地主의 아침>(1856)과 같은 주제를 이루고 있다. 대학 3학년에서 농민지도를 위해서 학업을 그만두고 농민속으로 들어가 <농노를 행복하게 하고싶다. 그리고 한 선량한 백성이 되고싶다>는 네프류도프(<지주의 아침> 주인공)의 말은 <農村開發>의 주인공 金一이

<나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정든 村中을 잊지 못하였소. 그래서 다시 내 故鄉에서 여러분과 같이 즐겁게 살아 보려고 돌아왔다>는 말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Mir 에 기초를 두고 非工業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러시아의 이 Vnarod 운동은 상기한 톨스토이의 <地主의 아침>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지식인의 농민에 대한 부채감에서 發源되고 있는데, 우리文學의 경우 「흙」, 「상록수」, 「黃昏의 노래」(이석훈, 33년), 「먼동이 틀때」(이무영, 35년), 「永遠의 微笑」(심훈, 33년)등의 主人公이 모두 지식인으로 自身들 個人的 榮達을 버리고 희생적으로 농촌개발과 農民啓蒙에 앞장서는 施惠의 態度와 同一하다. 네프르도프(「地主의 아침」)가 大學을 中退하고 <農民속으로> 들어가는것과 金一판사가(「農村開發」) 판사직을 두고 金村으로 들어가는 것과, 許崇이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살여울 農民속으로 뛰어드는 「흙」의 主題들이 모두 同一한 형태를 이룬다.⁵⁾ 다시 말해서 知識人和 有産層이 무지한 농민이나, 無産層에 베푸는 施惠의 啓蒙運動으로, 무소를 사숙한 위에 기독교적 人間平等思想을 진봉한 톨스토이主義의 擴大現象이다.

<金一>이나 <許崇>은 人道主義의 立場에서 民族이나 社會를 구제하려는 理想, 혹은 指導者의 使命感에서 살아가는 啓蒙主義者란 점에서도 네프르도프와 一致한다. 즉 톨스토이의 自傳的 小說「地主의 아침」(1856)이나, 春園啓蒙文學의 基本原型을 이루는 「흙」이 「農村開(啓)發」(1916)의 具體的 현상이란 점은 春園이 <나의 예술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톨스

5) 拙稿; 暗黑期(末)文學의 主流(한국어문학 31집, 1974.)참조

토이선생이었다>고 슬회하고, 톨스토이를 정당하게 이해하려면 「내종교」 「하늘 나라는 내안에 있다」, 「藝術論」을 열독할 것이라는 고백에서도⁶⁾ 유추할 수 있다.

以上 瞥見한 톨스토이의 啓蒙的 農民解放이란 휴머니즘의 立場과는 달리, 러시아의 아름다움과 우울과 孤獨 옛信仰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土俗的 要素와 調化시킨 이미지스트詩人에 Essenin 이 있다. 그는 1917년 革命으로 祖國 러시아에 독재정치가 시작되자 대부분의 文人이 고향을 떠나도 혼자 農村에 남아 反抗의 농촌서정시를 썼다.⁷⁾

나는 農村 最後의 詩人
판배기로 건넌 적은 다리는
조심성스러운 노래 가운데
白權앞새 피우는
작별의 미사속에 나는 서있다.

.....

「나는 農村最後의 詩人」

田園에서 고향으로 向하는 自然의 讚美와, 革命의 와중에서도 농토를 그리는 러시아 農民의 魂이 이별의 슬픔속에 나타나 있다.

무르녹는 풀밭, 오솔길에도
다사로운 봄빛이 희롱을 할 때.
한없이 마음 끌리어
우두커니 서있는 나를.....

또 무엇이

내나라 지경밖으로 몰아내려 하느냐.

썰처, 내고향 집에 돌아가면 알 수 없는 安堵에

내마을 기쁘고

여설푸른 저녁어둠 창가에 닦아 들 때

.....

「메밀꽃 피는 내故郷」⁸⁾

三月革命으로 農民이 무참히 독재권력에 시달릴 때, 톨스토이안들은 啓蒙으로 民衆에게 삶의 活路를 주려했고, 이런 詩人은 그들 農民과 友情의

6) 李光洙; 杜翁과 나(李光洙全集 16. 三中堂. 1966) p. 414.

7) M. Slonim; An outline of Russian literature. (The new American library 1959) p. 152.

8) Essenin; 에세닌詩集(吳章煥譯. 動向社) p. 10

아픔으로 서러움을 노래했다. 李光洙等의 農民啓蒙文人들이 이런 Essenin의 인氣流에 영향을 입은 흔적은 全無하다. 이것은 오히려 40년대 우리의 프로레타리아文學에 닿아 있다. 吳章煥이나 白石의 一面이 이것을例證한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木手베 집 현살을 짊, 한방에 들어서 권을 불이었다.
……(중략 20行)……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숲에 따로 의로이 서서
어두어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 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Essenin 이 抒情性, 民衆性, 예리한 내면성으로 고리카, 마야코프스키, 아세에프, 레오노프 등에게 높이 평가되었다면, 白石의 이 「南新義州 柳洞 朴時逢方」(學風, 1948)도 이 겨레의 생활감정과 그 풍토를 추구하며,落魄한 農民의 魂이 펼쳐보이는 피시미즘을 集約化하고 있는 農民詩로 새로운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볼때 Essenin 은 설사 農民詩人이라고 하더라도, 30年代 우리 農民啓蒙文學類와는 無關한 位置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추려서 우리의 農民啓蒙小說을 러시아와 同一한 主題的 立場에서 볼때 發信者와 受信者의 공통분모로 등장되는 것은 러시아의 <Narodnikism 運動>과 우리의 <學生夏期 브·나로드運動>(1931~1934 東亞日報)과 <文字普及運動>(1931 朝鮮日報)이라 하겠다.⁹⁾

9) 東亞日報社의 「學生夏期 브·나로드 運動」(1931—34)과 병행하여 朝鮮日報社는 文盲退治로 農民을 啓蒙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해(1931)부터 本格的인 文字普及運動을 벌였다. 이런 民族主義運動의 일환으로 「한글 紀念歌」 「文字普及歌」등을 현상모집했다. 稿稿: 브나로드運動과 農民小說(국어국문학13, 영남 대학. 1971 참조)

李種德作

- (一) 배움시다 배움시다/한자라도 더 알세
아는것이 힘이로다/배워야 사네
- (二) 기억 너은으로부터/한자 두자 배우세.
아는것이 힘이로다/배워야 사네
- (三) 힘있게 살려거든/배워알세 글자를
……(朝鮮日報, 1931년 1월 7일 4면)

日本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민소설이란 단적으로 말해서 농촌소재의 문학을 의미하거나 푸르문학의 한형태인 농촌소설을 의미하는것 같다. 1935년을 전후해서 자연주의문학이 붕괴한이후 톨스토이의 영향하에 발원한 白樺派의 휴머니즘문학은 파시즘에 대한 國策順應이란 전제된 조건앞에 더 피어나지 못하고 이 휴머니즘은 결국 농촌소재의 소설로 변했다.

이후 1940년대로 오면서 전쟁문학탄 발람하는 소위 “문학이 없는 시대”¹⁰⁾가 나타나면서 島木健作, 和田傳, 伊藤永之介(이 작가는 1931년 조선농촌을 그린 「萬寶山」이 있기도 함)등의 농촌자연을 소재로한 농촌소설이 나타난다. 이것은 모두 이 시기에 있어서 문학이 현실에 대한 비판도 부정도 할 수 없는 데서 유래된 일시적 도피처로서 농촌이 문학의 소재로 취재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일본의 유수한 농민작가이며 향토시인이라 불리는 加藤武雄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의 경향은 도시문명에 대한 자연귀의적인 향토소재의 농촌소설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加藤武雄은 日本농민문학회의 중심으로 반마르크스적인 입장에서 휴의문학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는 소위 新感覺派르 순수문학을 지향한 13人俱樂部의 한사람이었다. 川端康成도 한 멤버였던 이 그룹은 對社會의인 문제와는 관계없이 “장미색의 서광을 담뿍받으며 城頭に 선 13人の騎士”¹¹⁾로 자처한 작가들이다. 그리고 원래 13인구락부가 反마르크스주의를 취한다는 점에서 뿐만아니라, 그들의 작품세계도 일본고유의 自然界의 美이니, 그의 농민소설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점은 加藤武雄만이 아니라 他作家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예를들면 앞에서 소개한 健作 「生活의 탐구」 和田傳 「沃土」, 伊藤 「鶯」등의 작가가 당시문화정책적 제약을 받아 창작한 작품들도 모두 마르크스주의와는 절연한 구도적 생활을 묘사한 농민문학이다. 또 眞山靑果作的 「南小泉村」과 같은 작품도 농민의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으나, 그것은 자연주의작품의 한유형으로서 反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농민소설이다. 원래 Vnarod의 사상이 反마르크스주의를 취하나 그렇다고 叙上和 같은 일본의 농촌소설이 러시아적인 농민가운데로! 탄 휴머니즘적 방향에서 작품이 창작된것 같지는 않다. 白樺派의 인도주의는 산문문학의 성격을 다하기도 전에 파시즘에 억압당했고, 이런 상황이전에

10) 石上堅; 近代文學事典(一步社 書店, 昭和 32년) p. 194

11) 長谷川泉; 近代日本文學思潮史(至文堂, 1961) p. 153

그들의 문학은 이미 1923년 <種詩<人>을 장간함으로써 계급주의문학으로 나아가고, 또 한편에서는 탐미주의로 변천되기도 했으나, 40년대에 와서는 어떠한 문학도 國策順應이란 조건아래 문학적 사명을 상실하고, 素材主義로 흘렀다는 점은 前述한 바와같다. 이런 예는 비단 日本만이 아니다. 이시기 군국주의 체제하에 있었던 다른나라에서도 同一하다. 예를 들면, 당시 독일문학에서도 농민문학은 나치스문학의 한 主潮로 취급되고 있는데, 그들이 의미하는 농민문학이란 것도 自然歸依의인 蒿의 위대성에 대한 찬탄의 문학을 의미하고 있다. 도겐봉의 “우리들은 독일을 부른다”나, 고도헤르프의 농민문학정신이나, 아구비스미켈의 譯詩「가을의 노래」(1932), 그리제의「最後의 얼굴」(1933), 한스우이헤름의「大地의 노래」(1933)등이 모두 나찌스黨下의 독일사회에서¹²⁾ 인간의 인식처는 농촌이고 농촌으로 돌아가 안주하자는 현실에의 도피지, 농노의 자유와 농민의 계몽을 내세운 러시아와 같이 휴머니즘에 입각한 농민문학적 태도는 아닌것이다. “농민은 참깨씨와 같아서 밤으면 밤을수록 더 많은 기름이 나온다”는 천지숙에서 수많은 농민복동이 있었으나, 러시아와 같은 농민혁명(농노해방 1861→Narodnikism운동)은 없었고 위로부터의 혁명이요(玉政復古) 농민혁명의 부재속에 일본의 농민은 徳川末의 소위 5인조조직에 의해 지방지주의 압력밑에서 살아왔다. 1930년대 초에와서 일단의 젊은 농부들과 청년장교들이 일본의 농촌을 비참하게 만든 도당을 처치하였으나(수상 이누카이, 준노스께, 단다구마등 살해) 반군국주의적 독재정권의 문을 열어놓는 결과를 낳았을 뿐, 그후 파시즘을 맞아들어 패망하게 될때까지 농민은 군국주의의 체제밑에 살아야했고, 그들의 문학도 이런 政治的 풍토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학은 자연 그 도피처를 찾게 되었고, 그런 탐색의 결과 안이한 귀착을 한것이 농촌의 자연이었다. 이와같이 정치적 압제를 피해 취해진 소재주의의 작품외에 프로문학의 한형태로 창작된 농촌소설로서 黑島傳治의(1898~1943)「전보」, 「뽕지 매」, 須井—(1900~)의「綿」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綿」은 地主 <坂村>의 악질적인 소작농 착취를 주인공인 농업조합의 투사가 나타나 타도한다는 개요인데, 이러한 끝맺음은 프로문학이 농사로 하는 政治의 시녀역으로 떨어진 문학의 다른모습이 될 뿐이다. 이런 경향은 이 방면의 대표적 작가인 黑島傳治의 “농민문학을

12) エーリピトルツ ; ナチス文學の 主潮 (山崎八郎 譯. 育生社弘道閣. 昭和16年) p. 55-74.

말할때에 그것을 프로테타리아문학과 병립시켜서 대항적으로 말할것이 아니라……그것은 프로테타리아문학내의 일본야이며 프로테타리아문학에 포함되는 것이다”라든가 小林多喜의 “우리들이 농민문학이라고 말할때에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프로테타리아란 점에서 농민을 취급한 작품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외의 아무것도 뜻하지 아니한다…”등에서 요약된다. 叙上에서와 같이 일본의 농민소설이란 휴머니즘에서 발원했으나, 소재주의로 떨어진 작품과 프로테타리아의 일형태로 쓰여진 작품으로 대별된다.

주지하듯 일본문학은 19C末의 政治小説시대를 거쳐 자연주의문학의 절정기를 갖는다. 이어서 이 자연주의는 붕괴하여 탐미주의, 인도주의, 계급주의로 나타났다. 봉건도덕과 사상에 반역이란 안티테제에서 탐미주의가 자연주의와 合致되어 西區化로 나타났고, 인도주의는 톨스토이의 영향하에서 생성된 白樺派에서 시작된다. 이런 일본의 문예사조는 1922년 <白潮>가 창간되던 한국문단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물론 前述했듯이 春園의 인도주의에서 출발한 농민소설이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反자연주의로 해석되고, <創造>파의 예술지상주의, <장미촌> <廢墟> 등의 유타주의 <白造> 3호를 전후해서 八峰에의해서 계급주의문학이 수립된 것들이 모두 이를 말해준다. 여기서, 일본에서 수입된 우리나라 계급주의문학은 小牧近江의 <種蒔人>이 2차로 발간되고(1920.2) R. 로랑의 民衆劇場이 本間久雄의 <民衆藝術의 의의 및 그 가전>가 논의되는 그런 사회 및 문단분위기를 八峰이 받아들여 이 나라 사회주의문학의 기틀을 이룩한 것이다.¹³⁾

그런데 일본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부르조아계급이 형성된 사회이기에 자본가타도란 (『縮』에서(須井一) 지주 시카무라의 타도처럼) 계급문학이 얼마간 먹혀들어 갔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한번도 서구적 자본가 형성이 이뤄진 일이 없는 풍토에서 당시 푸로작가들이 내건 계급문학은 생경한 이론의 표백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그러한 시기에 쓰여진 것이 소위 프로테타리아족의 농민소설이다. 즉 일본에 있어서는 (1920년대 이전) 自作農의 붕괴와 소작농의 놀라운 증가라는 농촌의 계급분화에도 불구하고, 地主는 거대한 이익을 얻어 그것으로 공업화를 위한 자금이 마련되는 그러한 사회 구조에서 생성된 계급문학의 일본적인 농민문학이 조선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선농업은 자기의 내부에 자본주의적

13) 金允植; 靑月朴英熙研究(學術院論文集 七輯) p. p. 174—185 참조.

생산조직화의 조건을 결여하고 있었고, 세계의 대세와 일본자본주의 발전상의 요구에 따라 강행적으로 자본주의화내지 가격경제화를 노리는 입장에 있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할 때 八峰등이 일본에서 수립한 제급문학에서 출발한 한국의 농민문학이 일본의 그것과 동일한 입장에서 쓰여지고 있음은 지나친 모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즉 전술한 須井一의 「綿」에서地主 <坂村>의 착취로 大阪방직공장장으로 살터간 小作農 딸의 원한을 농업조합의 투사가 갚아준다는 주제처리는 마치 民村의「故郷」의 주인공 金喜俊이 마름 安承學을 타도하기 위해 小作農들을 규합선동하는 히어로로 처리되는 것과 같다.

「故郷」(1931 조선일보)의 주인공 김희준은 東京에서 法學工夫를 하고 귀향한 당대 최고 인테리다. 「흙」의 허송이 東京留學을 거친 변호사 출신이듯이, 이도 당시 최고 지식계급이요, 선민의식에 찬 인간이다. 이런 김희준이 <군수나 변호사를 할것>이라는 父母나 동민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제는 품팔이 농사꾼의 형국이요, 거저팔이 된 자신의 처자와 가정은 돌보지 않고 곧 농민운동을 전개한다. 부잣집 사위란 유산계급출신(허송)도 아니요, 농업전문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에서 한여인과의 사랑을 곁들여 농촌계몽운동을 하는 여유를 보일수 있는(박동혁) 인간상과는 달리, 김희준은 때물은 손가방 하날들고 귀향 하자 마자 마름(安承學)을 타도하기 위해 청년회를 조직하고 그들을 지도한다. 주인공의 이런 행장의 一面은 「흙」이나 「상록수」와 마찬가지로 30년대의 관심사였고 共感이던 <브·나로드운동>에 터를 두고 있다는 一다시 말해서 知識人 對 蒙昧한 農民(小作農)이란 時流의 테마를 잡고 있진 하다.

곧 야학을 세우고, 청년회를 조직하고 주인공이 농민을 위해 희생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主題처리는 너무나 판이하다. 즉 作家 李箕永은 즐겨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폭로, 선동하고 있다. 언어를 통한 예술적 감동이 아니라, 소작농의 비참상을 感情的 說話體로 전개하면서 묘사가 아닌 饒說의 氾濫이 工場으로! 농촌으로! 를 부르짖으며, 大衆의 조직운동을 전개한 30년대 프롤레타리아운동¹⁴⁾ ... 이 도식적이고 관념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얼른 생각하면 이 동리의 가난한 작인들은 그 집에서 (안승학)분배해주는 전장을 얻어 부치니까 서로 친한것 같은데도 실상은 그와 정반대로

14) 白鐵; 朝鮮新文學思潮史(白楊堂. 1950) p. 162

간격이 벌어졌다.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마치 물에 뜬 기름과 같이 한 이웃간에도 서로 쌓이지 않았다. 웬일인지 이러한 간격은 해가 바뀌는 데로 점점 더 심한것 같다¹⁵⁾.....>

이것은 독자를 선동하는 작자의 욕성이다. 이런 욕성은 도처에 발견된다.

<백은 이 동네에서 부자유 행세하는 양반인지 모르나 다짐은 공장직 여직공으로 경호하고 좋아지내니 당신도 결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친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¹⁶⁾.....>

이런 저문의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소위 無産階級 對 有産階級이요 그 결말은 무산계급의 승리다. 계방공사, 제사공장건립공사, 철도부설공사의 임금과, 낱품팔이 농삿군이 사는 원터동리의 지도자인 喜俊은 위의 인문에서 보이는 것과같이 계급대립감을 불러일으킨다. 그후 농민을 규합하고, 마름의 딸 <윤희>가 종의 업동이인 <경호>와 양반지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미친한 사랑>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미끼로 농민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킨다. 이런 觀點은 농촌은 빈곤한 곳이요, 무지의 집단이요 선량한 인간만 사는 외곽지대—그러므로 계몽해야 된다는 式의 소박한 농민계몽의 한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농촌을 계몽해야 된다는 대전제는 같다.

<그가 고토로 나온것은 자기 한점을 위해서나 일신의 행복만을 위해서는 결코 아니었다.....그는 나오는 길로 열정을 가지고 청년회를 개혁해보려 하였으나 완전히 실패하고 그 뒤로는 농민을 상대로 농촌개발에 전력을 다해 왔는데.....지금은 야학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격려할 기회도 없다. 일시 기본적으로 흰소리를 냈던 그들의 기열은 그후로 속 들어가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발발 떨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비겁한 그들은 오랫동안 붙어있던 농노의 근성을 죄다 털어버린 줄 알았던것이 마치 장마속의 곰팡이처럼 그들에게다시붙지 않았는가>¹⁷⁾

30년대에 나온 농민소설의 거개가 주인공의 동경유학을 하고 法律工夫를 한 인물이다. 「흙」의 허승이 作者자신을 연상시키는 志士의풍모라면 「故郷」의 主人公은 그들의 目的小説답게 혁명적인 이데오로기의 宣傳隊員으로 나타난다. 이 주인공을 이상적인물로 그림으로써 그들의 목적수행에 便法을 얻으려하나, 情熱의이고 必要한 意識안에 있어서는 지극히 慚

15), 16), 17) 李箕永; 故郷(雅文閣 1948)

性的일 수 있는 그는 境遇를 統禦하여 行動을 傳達하면서 환경에 대해 나아가는 힘을 集大成하였고 마침내 새로운 生活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방개>나 安承學이 性格의 異常性을 가진 人物임에 비해 金喜俊은 과학적 認識力을 가지고 현실을 파악하는 人物로, <방개>나 安承學이 生活의 個別的 世界에 머무는데 대해 金喜俊은 그러한 個別的 특징을 통한 生活의 발전적 總화의 세계를 이룩한다.¹⁸⁾고 好評되기도 했다.

그러나 主人公과 結탁하여 아버지 安承學을 매도하고 자신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甲淑이나, 일본 유학까지 하고 온 최고의 에리트가 극도의 빈곤에 허덕이는 가족을 외면하고 소작농의 사상계몽을 先唱하는 人物들의 편모는, 理念이 人間의 보편적 모랄을 압승한 위에 感動과 공감이 배제된 우연적 구성과 通俗이 陣을 친 饒舌이 偶然性을 捨象하려 할 뿐이다.

이와같이 <故郷>은 社會主義리얼리즘이 常用하는 典型的인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인물창조에 머물고 있다고 볼 때 이 작품은 <흙>이나 <상록수> <민동이 틀때> 등이 지니고 있는 농촌촌민의 계몽과 교육이란 성격과는 다른 農民小說이라 하겠다. 도처에 보이는 농촌풍경의 叙述, 이런 묘사의 精神은 分析의 정신이고, 또 분석의 정신이란 것은 一定한 이념이나 典型性創造의 목적밑에 連結된 종합을 전제로 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民村이 구사하고 있는 대중적문맥과 농민에게 혁명적 정신의 일단을 주입시키려는 내용은 프로레타리아문학이 지향하는 이른바 大衆性, 典型性, 理想主義, 黨性이란 예술의 一元化의 목적을 기도하고 있음이 명백해진다. 前述한 것과 같이 喜俊은 농민전체의 일은 말아하면서도 자신의 가정과 아내에 대해서는 일종의 중오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나 부잣집 딸 甲淑이 학교를 그만두고 제사공장 工女로 들어가서 회춘의 농민운동을 도우는 점등이 그것이다. 同語反復이 되겠지만 이런 인물들의 一元화된 行動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작자의 作爲와 세계관에 의하여 理念의 造影으로 나타난 인간상인 것이다. 또 甲淑이로 하여금 그러한 인생행로를 걸게 한 환경의 필연력이 부족할 뿐아니라, 경호와의 연애관계에 있어서도 現實感이라든가 인간성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

작자가 어찌서 이렇게 人物을 結縛해 놓는가는 명백하다. 그것은 프로문학이 가지고 있는 原初의 使命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의 注入이란 점에 연유된 작자의 세계관 내지 현실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다. 熱情으로 환경을 창조해 나가려는 주인공은 개별적 특징을 통한 生活의 發展的總和의 세계를 具現하려는 人間像이란 점에서 가치를 인정할만하나 이런점이 社會主義 리얼리즘의 형태를 條件지우는 또 하나의 특징이 된다고 볼때, 그 評價는 自然 달라진다.

이상 논술한 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註. 18) 安舍光; 長篇小說檢討(二), 人文評論 1940. 11. P. 35.

	러 시 아	日 本	韓 國
史 實	<p>① 나포레온 칩공 → Narodnikism 運動 → 지식인의 農奴解放運動.</p> <p>② 三月革命(1917) → 獨裁에 대한 지식인의 항거.</p>	<p>○ 만주사변 이후 軍國主義의 강화 → 모든 제제의 획일화와 제도화 및 규제화.</p>	<p>○ 日帝下의 韓國文學</p> <p>① 抵抗文學</p> <p>ㄱ. 휴머니즘문학—이광수등 ㄴ. 저항문학—(심훈, 윤동수, 이육사, 김정환)</p> <p>※ ㄷ. 프로문학</p> <p>② 순수문학: 김동리, 김동언등</p> <p>③ 이데오로기文學: 프트대타리아文學의—分枝→프트측 農民文學</p>
史實과文學의照應	<p>① Narodnikism 運動 → 휴머니즘文學: 톨스토이, 도스도예프스키, 作品「死의 家의 記錄」「처녀지」 톨스토이 및 샬로호프 등의 作品의 一部. 「地主의 아침」</p> <p>② 獨裁(1917혁명)에 대한 抵抗→ 진정한 러시아의魂은 그 1농민에게 있다→ Essenin의 농민詩</p>	<p>○ 國策順應에 대한 반발로</p> <p>① 좌익문학 ② 反 Marx적 자연 취제의 순수문학</p> <p><예></p> <p>①: 「綿」(須井-) 「선보」 「왜지레」 (黑島傳治)</p> <p>②: 「南小泉村」(眞山靑果) 「生活의 탐구」(健作) 「沃土」(和田傳) 加藤武雄의 作品 大部分=白樺派 (톨스토이의 영향)→新感覺派</p>	<p>① 抵抗文學</p> <p>ㄱ. 이광수휴머니즘文學: 터시아의 Narodnikism→브·니르드운동. 「杜翁과 나」→「農村苦發」→휴→휴머니즘文學.</p> <p>ㄴ. 金廷泌: 「落日紅」 수록본 농민 소설.</p> <p>③ 李箕永의 作品 日本의 프로文學→한국의 프로측 농민소설. 作品對批: 「綿」과 「故郷」</p>

작 품	年代	主人公의 指向意志	테 마	作家的 狀況
地主의 아침	1856	大地主의 아들 네프로도프는 大學을 中退하고 農民生活改善을 위해 歸農	知識人(지주계급)이 農奴解放 運動(농노에 대한 부채를 갚자 → 휴머니즘文學) 農奴解放; 1861	Narodniki 運動, 톨스토이 자신이 카잔대학 중퇴(1847) 뿐 아니라 領地로 歸農 Narodniki(1869—1872) 운동에 先驅. 농민생활개선
흙	1932	許崇, 변호사직을 사임하고 農民生活改善을 위해 歸農	식민지의 살길은 농촌개발과 농민계몽뿐이다→迂迴된 民族 抵抗意志→휴머니즘文學	農材啓(開)發로 Vnarod 물 前提. 「흙」으로 照應. 「杜翁과 나」에서 영향관계를 밝힘(1935)
綿		地主 사까무라의 小作農 작위를 농합조합투사가 규합 타도.	有産者는 無産者에 의해 붕괴되는 革命的 과정으로 제기되어야 한다→프로文學의 一分枝	13人 俱樂部의 순수문학에 대한 階級적 입장에선 프로작가(9세~24세까지 陶器工生活)
故 郷	1931	극히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 金 喜俊이 東京留學에서 돌아와 法政界에로의 진출(法科출신)을 그만두고 소작농사회로 들어가, 그들의 가난을 면하게 하는 길은 프롤레타리아혁명정신주입에 의한 지주계급 타도라고 역설.	지식인의 農民啓蒙에 依한 民族 活路개척이 아니라, 지식인의 프롤레타리아 革命精神注入에 依한 새로운 세계진설. 地主, 마름은 小作農의 단합에 의해 그 계층을 없애야 한다.	李光洙를 主軸으로 하는 民族主義文學則의 農民啓蒙小說(Vnarod의 理念)에 對한 프로文學의 특징, 곧 社會主義리얼리즘의 猛將으로서의 그 人間像을 作品으로 具現

Ⅲ. 結

以上과 같은 論議에서 다음과 같은 몇개의 結論을 導出할 수 있다.

(1) 大部分의 文藝思潮가 西歐를 發信國(emetteur)으로 하고 日本을 送信國(trans metteur)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春園의 「흙」은 러시아文學의 影響—특히 톨스토이의 「地主의 아침」과 같이 Narodnikism 思想에 터를 둔 作品으로부터 發想을 입고(Influencee recue) 있다.

(2) 「故郷」은(1931) <學生夏期 보·나로드運動>이나(1931—(34) <文字普及運動>(1931)과 同時期에 쓰여졌으나, 春園의 「흙」(1932)과는 달리 日本을 그 發信國(émetteur)으로 하는 社會主義적일리즘의 한 代表的 作品으로 評價된다. 다시 말해서 「흙」이 러시아의 휴머니즘文學에서 發源했다면 「故郷」은 須井 一等 日本 프로테타리아文學의 一分枝인 農民小說에 源泉을 두고 있어 러시아文學에서 직접 受信한(récepteur) 例는 發見할 수 없다.

(3) 우리의 文學史 記述에 있어서 參與文學의 好例를 30年代의 이들 農民啓蒙小說에서 잡을 수 있고, 春園의 「흙」은 民族의 至難했던 異民族 治世期에 民族再生의 길을 啓導하려한 民族文學의 典範으로 잡을 수 있다. 이점은 다른 많은 農民啓蒙小說의 產出이 이 「흙」으로 始發되었다는 點에서도 그러하다.

比較文學이란 <國際間的 文學的 關係의 역사>이며¹⁹⁾ 文學事實의 交流를 探索하는 文學史의 一分野라면, 本稿가 문제삼은 것은 主題作家들 사이나 作品들 相互關係, 創作의 動機등을 中心으로 하는 비교적 實證的 態度를 취했다. 이것은 보편적인 文學의 概念이나, 文學의 포괄적인 統一의 認識이 筆者로서는 不可能했기에 취해진 方法이다.

그리고 이러한 論議는 思想, 原籍등에 의한 더욱 本格的인 研究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9) 昭和 14年 레이몬트의 「農民」이 戰時 體制版으로 日本에 소개되고 新居格은 譯序에서 銜後文學과 戰線文學의 共同 요건을 要하는 때에 이 작품은 古典型이라 말하고 農民文學懇話會農民文學 주장과 연관지었다. (p. 3) 그리고 이런 이론은 같은해 人文評論(10월호)에 農民文學懇話會의 이론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林和의 「農民과 文學」(文叢, 1939. 8)과 「日本農民文學의 動向」(1940)으로 本格的으로 소개된다.